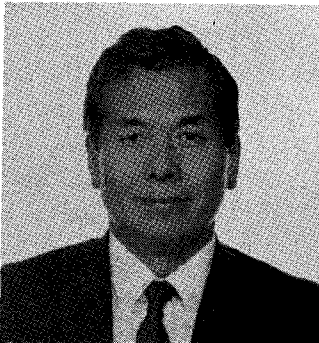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 오직 특허맨으로 외길 30년



陳今燮
(在美韓國辨理士)

3월 5일이 오면 많은 친구들의 전송을 받으며 김포국제공항을 떠나 이 이국만리 美國에 移民온지 꼭 10년이된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별달라진것 없이 세월만 흐른것도같고 얼핏보기에 흰머리가 돌고 체중이 좀 늘은것이 좀달라졌다고나 할까...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이 10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해보며造物主 하나님을의 보호하심을 감사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로 이민의 뿌리를 내리는데 순탄하였다. 한국인의 미국이민의 歷史는 여러類型으로 나눌수 있지만 이곳에 와서 학교를 다닌

group과 그냥 한국에서 사회인으로 되어온 group으로 나눌수 있는데 筆者는 後者에 속하며 후자 group의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갖고 있던 戰鬥職種을 못갖고 식품점, 식당, 세탁소, 꽃가게, 청소업, 건축인 등의 소규모비지네스로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필자는 3월 16일에 미국의 수도 Washington에 도착하여 4월 5일부터 이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BSKB 특허법률사무소에 join하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지적재산권(特許, 商標, 著作勸等)의手續, 登錄, 分爭, 기타 모든것에 대한 크고 작은 일들을 取扱하는 영광을 가졌고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과 한국의 特許實務를 더 배우고 아울러 특허맨들과 더 자주 만나며 이른바 patent man으로 외길이 계속되고 eternally 계속 될 것이다.

더욱이 요즘일수록 知的産業財産權의 位相이 높아지고 韓美關係에서 빼놓 수 없는 Agenda로 둔갑을 했으니 patent man으로써 이 professional job을 一世移民者로써 영위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고 희귀한 일인가. 아마도 唯一無二한 것으로 안다. 한국 특허청에서 patent Examiner로써 15년, 한국에서 변리사개업 2年, 그리고 이곳 미국특허전문법률사무소에서 10년, 약 외길 30년이 特許分野에서만 계속되었으니 더욱 고귀(?)하다고 자

화 자찬해본다.

지난 1월 12일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韓美科學 및 技術協力 Forum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한국측은 김지현 과학기술처장관이, 미국측은 Dr. Thomas J. Schenider 클린턴새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현홍주 미국대사, 강진구 삼성전자회장, 서정욱 KIST원장, 홍재학 항공우주연구소장, 강신흥 한국산업기술협회장, 이경훈 대우 중공업 사장, 미국측에서는 Brown 미하원 우주과학기술위원장, Glenn 상원위원, Bromley작전대통령 과학고문등 한미 행정부, 정치계, 학계, 산업계, 과학기술계, 경제계에서 저명한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筆者와 BSKB의 主人 변호사들도 참석했지만 每連士마다 知的 産業財産權에 대하여 強調를 하는 現實을 볼 때 30년전 필자가 특허청에 종사할 때 “특허”라는 용어가 북한간첩이 넘어오는 시절이라 “특공대”로 오인 혼동되던 시대와 비교 해볼 때 너무나 달라진 것에 소스라쳐 놀라지 아니 할 수 없다.

둘째로 미력하나마 한국의 특허분야에 깊이 관여한 것에 긍지를 갖는다. BSKB :Law Firm이 일찍이 시작한 Summer Training Program(STP)등에 한국의 특허청, 회사, 협회, 변리사사무소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참석하여 근 7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2년에 한번 시찰단, 변리사회시찰단, 학교발명반선생 방미단, 그리고 특허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수, 방문에 주선, 안내, 숙식제공 등등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는 일을 했다고나 할까.

더욱 중요한 일은 한국인 client건에 대하여 BSKB에서 代理하는데 Communication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많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이 등록되고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여 한국측에 유리한 高地를 제공하는것 등등일 것이다. 한가지 가슴뿌듯한 일은 한국인 client가 他美國 Law Firm에서 Communication의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 BSKB

에 Transfer 되어 쉽게 그리고 싼경비로 목적을 달성할때 직접 내일같이 환회에 참례다.

셋째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祝福이다. 10年前 이민올때 wife가 직장 cancer 수술을 끝낸 병고의 몸이었으며 그 二男一女의 장녀가 高2, 中3, 中1, 을 각각 마치고 낮설고 물설은 異國땅에 와서 言語가 전혀 다른 高等교육을 받아야만하는 험난한 길이기도 했지만 wife는 再發조짐이 없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BSKB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며, 子女들은 言語와 文化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립대학으로 10位안에 들어가는 UV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長男은 神學大學院을 나와 미국에서 교포교회로 제일큰 LA영락교회에서 선교목사로(자부는 같은 UVA를 나온 교포재원으로 미국고등학교 Spanish 교사임), 次男은 世界的인 Merck 제약회사의 Salls man으로 2년있다가 세계굴지의 투자금융회사인 Lehman Brothers 서울지사과장으로, 막내딸은 電子工學을 전공하고 가장 父母와 관계가 있는 U.S 특허청의 Patent Examiner(Group 250)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二重言語를 잘 구사하는 Bilingual들이고 한·미 양국의 장점들을 잘 답습한 Golden man들이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앞으로 10餘年 더 活動할 수 있는 기회를 生死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Patent man으로 달려갈까 한다. BSKB에서는 1년에 4번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국 client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새영업정책을 세웠기에 더욱 보고싶은 그리고 잊혀져가는 고국의 patent man들과 접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조국에 처음으로 文民政治가 시작되고 韓國病을 치유하고 새한국을 건설하는 마당에서 知的財産權制度의 중요성과 이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의 국가와 사회와 민족에 대한 아낌없는 공헌이 要請되는 이때에 적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Washion 한 모퉁이에서 글을 마친다.(워싱턴 BSKB 特許法律事務所에서) ♣